

지역 소식통

하반기 지방세징수실적 부안군, 최우수시군 선정

부안군은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최우수시군(그룹내 1위)으로 선정돼, 기관포장 수상 및 상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등 8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을 평가한 결과 부안군이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부안군은 상습·고질 체납자가 발생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행정제재 등 다방면으로 강력하게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고 있다.

이영훈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부재원 확충을 위한 대비책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또한 납세자 중심의 징수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지방세 징수확과 건전한 납세분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상하면 의용소방대 관내 대대적 방역·소독

고창군 상하면 의용소방대(대장 박복기)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방제기를 동원 상하면 관내에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면사무소, 농협, 시장, 터미널 등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의용소방대 박복기 대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진 만큼 방역방제기를 동원해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주민들이 개인소독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생명수도 실현 가속도

고창군, 내년 농생명 지원 사업에 총 855억원 투입

농업·농촌 가치증진, 미래먹거리 사업 집중키로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내년 농생명 지원사업에 855억원(본예산 대비 12%)을 투입한다. 농업·농촌 가치 증진과 미래먹거리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제값 받고, 보탬을 찾을 수 있는 농민군수 유기상 농정(農政) 3년차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주요 농생명 사업별 올해 성과와 내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 '고창에서 시작한 전북 첫 농민수당, 대한민국 전체확대'는 올해 고창군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농민공익수당은 1만68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모두 81억원 상당이 지역에서 사용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됐다. 내년에는 양봉농가와 어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1만2000여농가에 모두 72억원 상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올해 기본형 공익형직불제는 1만521농가에 368억원(전년대비 2배 이상)이 지급돼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줬으며, 2021년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올해 고창 유채꽃은 14개 읍·면 전체에서 32개 경관지구로 1287ha에 달했다. 꽃이 진 후에는 유채를 수확해 유채유 가공과 조사료 등에 따른 추가 소득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경 먹거리 천국' 고창군의 입지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이달 고창일본산업단지에 고품질쌀 가공·건조·저장 시설, 고구마 가공공장 신축 등을 잇따라 착공해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창군의 안전 먹거리 생산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및 스마트 농업확산=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고창군은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지원을 비롯해 영양제·친환경 자재를 품목별로 지원하여 고품질 작물 생산에 힘썼다.

특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부지정리, 도로장비, 용배수시설 조성등을 통한 고창군 농업의 첨단화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1년에도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ICT 장비지원과 기존 노후화된 비가립 하우스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에 힘쓴다.

▲상생하는 선순환 복분자 산업생태계 구축=고창 복분자 산업 활성화는 고창군의 3대 현안사업으로 지역 최대 관심사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건강식품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올해 복분자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소재 농가에 생산장려금과 유통구조 일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소매관이 서로 상생하면서 안정적인 수급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수매참여 농가와 소매점에 수매장려금을 포함한 9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복분자 수매장려금 등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창 복분자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내년 농생명 지원사업에 855억원(본예산 대비 12%)을 투입한다.

정읍시, 정비 불량 자동차 운행사고 '제로화' 도전

법령 위반 차량 집중 단속 나서

정읍시가 2021년 정비 불량 자동차 운행사고 '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시민 도로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총 6만1,119대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통해 성능저하와 불량 등 교통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추방키로 했다.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차량은 행정명령으로 차량 정비 후 운행토록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과

태로 부과처분과 운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계는 직권 등록발소 처분해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정비 불량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5,700명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도로교통 운행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토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 운행금지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

획이다. 또한 밀집 자동차·건설기계는 차량 소유자가 밀집 자진신고 후 등록발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밀집인정 자동차는 비과세 등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안전기준 준수, 튜닝 승인 의무보험 가입 등 준법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와 함께 계도 활동도 공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은 정비 불량 자동차 운행사고 제로'를 목표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강화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법령 위반 차량을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공실버주택 준공 '눈앞'

정읍시, 공정률 85% 마감공사 한창... 내년 4월부터 입주

정읍시가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의 입주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세대 내 편의시설과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공공주택이다.

지난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은 공정률 85%를 보이며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한창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7,821㎡ 규모로 단순한 아파트 이미지를 벗어나 외관이 돋보여 터미널 인근 랜드마크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상 1층 복지관은 복지·여가·건강 관련 시설을 한데 모아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안한 노후를 돕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5882)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주민이 1순위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주민 또는 차상위 계층은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50% 이하인 주민은 3순위다.

순위 선정에서 탈락한 후 순위자는 입주예비자로 관리한다. 임대조건은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225만9,000원에 월 임대료는 4만4,930원, 차상위 계층 등은 보증금 1,181만8,000원에 월 임대료 11만6,380원이며,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별도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지도자회 부안군연합회, 정병만 회장 선출

농촌지도자 부안군연합회는 지난 24일 비대면 우편투표로 2021~2023년까지 25대를 이끌게 임원진 선출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회장 정병만(계화), 부회장에 이수근(주산), 이현기(보안), 감사에 김윤식(백산), 김형섭(상사)씨가 선출됐다.

정병만 회장은 지난 24대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25대 군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정병만 회장은 "지난임기중 코로나19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해 다시한번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고 회원들과의 소통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도자회 농촌의 선도적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성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에, 봉사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농업과 농촌문화, 청정농업, 농업인 권익보호 복리증진도모 등을 통해 농업농촌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선도농인 농촌지도자회원들의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심마을 조성 완료

정읍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 중인 안심마을(통학로) 조성사업이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심마을(통학로) 조성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초등학교 인근은 차량 혼잡으로 초등학교들의 통학로 교통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또 노인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면서, 우체국 이전에 따른 보행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승하차를 감소한 도로설계(사계인,

엘로우캐트 등)와 차량 속도저감시설 설치,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서초등학교와 우체국(예정), 여성문화회관 사이 교차로를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 체계로 변경했다. 시는 안심마을(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연지마을을 주거지를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골목길 및 안심길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